믿는 구석

(막11:27-33)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강아지가 무슨 강아지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룻강아지라고 하니까 '하루 된 강아지',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난 그런 강아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릅'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릅이라는 것은 일 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일 년 된 강아지인데, 이 속담의 내용을 보면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사냥개인 모양입니다.
일 년 지난 사냥개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건 세상모르고 겁 없이 마구 덤벼드는 철없는 모습을 빗대서 하는 속담입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버티고 있을 때, 사냥개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범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뭐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포가 경험한 실화라는 단서까지 붙이면서 말하는데, 사냥개 한 마리가 얼마나 겁 없이 드세게 밀어붙이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나요?
이해는 가는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은 있어요.
개라도 주인을 믿을 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주인이 버티고 있어서 주인이 믿을 구석이 돼줘서 범도 무서운 줄 모르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 때의 하룻강아지가 하룻강아지의 본래 모습인지, 아니면 주인이 안 보일 때 동네에서조차도 길거리에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몸집 큰 5년 된 개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그 모습이 진짜 하룻강아지의 모습인가, 믿는 구석이 있느냐 없느냐,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버립니다.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진짜 여러분 자신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혹시 이것저것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 믿는 구석이 아직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믿는 구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성전정화사건을 일으키신 뒤에 성전을 거니시니까 이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것은 선민 유대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체제 전복의 의도가 담긴 사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결정 아래서 그 사회가 그들에게 정당하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장사꾼에게 커미션 받아먹는 것이.
대단한 변질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회 내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에 의해서 인준을 받은 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엎으십니다.
놀란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뒤엎을 수 있는 이 자의 행동이 도대체 어떤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 권위라는 것은 '누가 너에게 그런 성전정화를 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도대체 나사렛예수라는 이 사람의 배경이 뭐냐?
이 사람을 백업 해주고 있는 뒷배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뒷배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얼 믿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out of, 거기에다 '웃시아' 영어로 말하면 본질, essence, nature, substanc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어명이요!' 할 때, 임금님은 안 계시지만 임금님으로부터 연결돼서 임금님에게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에요, 암행어사의 권세.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자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인문학 계통의 학자라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에서 직접 자기의 사상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2, 제3의 책들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글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직접 뽑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라 이겁니다, 학자의 권세가 거기 있는 거지요.

정치인의 권세, 누가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권세가 생기는 거죠.
경찰의 권세, 집채만 한 트럭이 80킬로로 달릴 때 누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루라기 하나, 손짓 하나로 그 트럭을 세우죠?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에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도록 도가 넘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믿는 구석이 뭐기에 저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업이 망했는데도 태평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 박사장말이야, 사업이 쫄딱 망할 것 같은데도 태평하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게 얼마나 공 들인 사업인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겠지!'
이 믿는 구석.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요.
'주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시구나! 믿는 구석이 뭐기에 이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정화 하는 사건에서만 '예수님, 당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합니까?
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만할 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감하고 용감할 때, 지나칠 정도로 무모할 때, 이때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냐?' 묻는 것 아니겠어요?
지나칠 정도로 태평할 때, 지나칠 정도로 자유스러울 때.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름도 존재도 몰랐다가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 이름들이 다 세상에 드러납니다.
믿는 구석이 생겨서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뒤엎을 정도의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가 권세를 주어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믿는 구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행동들이 조금이라도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과감해 보이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만해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를 데 없이 거만하고, 신성모독죄로 뒤집어씌울 만큼 거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만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구석이 무언지 모르니까 그렇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내 마음은 거만하지 않지만 때로는 거만하여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태평스레 보이기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태평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무모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지나치게 용감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믿는 구석이 되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아버지라서 믿는 구석이 되어버린 대통령의 아들들의 행동이 방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좀 이러한 방자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이 정한 상식, 세상이 정한 룰을 범한다는 의미보다는 초월할 수 있는 방자함.
말이 잘 맞지 않죠, 초월한 방자함이라는 말이?
그러나 뭘 말하는지 알아들으시겠지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도 태평한 모습,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웃는 모습,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 벌벌 떨어야 할 대상 앞에서 할 말을 딱딱 하는 모습, 좀 이런 게 보여야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

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믿는 구석은 아니에요.
믿는 구석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10억 들어있는 내 통장이 믿는 구석이에요.
그거 믿고 나머지여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믿고 안심하면서, 10억을 쪼개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면 500개월을 쓰나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사람 만날 때는 내 영어실력 믿고 겁 안 내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구석으로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구석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 자신이 천국이 믿는 구석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사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믿는 구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라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십니다.
대답해 봐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그 상태를 얘기해 봐야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묻는 예수님의 말에 답변을 안 해버립니다.
왜 안 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구석은 이 세상의 조직상 상위를 점하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믿는 구석이고 사람들의 말이 믿는 구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믿는 구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허망한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믿는 구석이 돼서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지요?
다 내 발등 찍을 도끼들입니다.
믿을만한 구석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믿는 구석이 될 때,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눈과 코와 입으로 확인되지 않는 천국이 나의 첫 번째 내 마음이 느끼는 현실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천국이 믿는 구석이 되고 천국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믿는 구석이 될 때, 로마의 치하에서 아니면 유대사회 내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핍박과 그들의 권세 앞에서 맞서서 정말 벌벌 떨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던 이 자들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앞에서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돈이 무섭죠, 먹고 사는 일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무서운 거고, 다 무서운 거예요.
사장님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기껏해야 돈이에요, 돈.
그 돈을 벌려니까 사장님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당신이 취직을 안 해봤으니 그렇지!'
왜 취직을 안 해봐요?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회사하고 다른 줄 아십니까?
조직사회는 다 똑같아요, 교회에 속해있고 교단에 속해있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교단에 속하지 못해 안달하는 줄 아십니까?

교단이라는 게 믿는 구석, 울타리가 돼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될 타이밍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 게 믿는 구석이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는 구석이 됩니까?
조물주가 믿는 구석이 될 때에 나 혼자서 세상을 맞설 수 있어요.
나 혼자서.
왜? 세상이 하나님 것이니까 세상을 맞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믿는 구석, 그것이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것 마음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내 spec, 영어실력, 학벌, 인간관계, 동창회 이런 것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구석으로 자리 잡지 못하시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되면 예수님처럼 무모해 보이시는 행동과 말과 생각,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지나치게 태평해 보이시는 모습.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포착이 안 되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되니까.

이 믿는 구석이 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내 믿는 구석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십자가를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믿는 구석을 찾으려는 이 죄악 된 경향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기다리세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태평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과감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겁이 없지? 이게 난가?' 그게 나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실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천국이 믿는 구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다 겁에 질려있고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천국이 믿는 구석인 것은 돈 없는 상황에 내 마음이 닿기 전에 천국이 먼저 가 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기도를 내 마음을 잡아채가는 모든 것들에 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내가 자식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이 '엑수시아',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과 기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태평스럽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을 이웃들이 가족들이 나한테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진짜 모습도 아니고, 믿음도 아직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요, 천국이 믿는 구석이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받으면서 살게 돼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가 믿는 구석이 지금 무엇입니까?

또 믿는 구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